

깨달음의 증명

| 원오 스님 |

어떻게 깨침에 이르는지, 그 깨침이란 어떤 상태인지, 아주 짧은 한 단면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편집자 주).



[본문]

다음날, 마조 스님께서 법당에 올라왔다. 대중이 모이자마자 스님께서 나와 법석(法席)을 맡아 버리니 마조 스님은 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스님께서 방장실로 따라가자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조금 전에 말도 꺼내지 않았었는데 무엇 때문에 별안간 자리를 맡아버렸느냐?”

“어제 스님께 코를 비틀려 아파서였습니다.”

“그대는 어제 어느 곳에 마음을 두었느냐?”

“코가 오늘은 더 이상 아프질 않습니다.”

“그대는 어제 일을 깊이 밝혔구나.”

스님께서서는 절하고 물러났다.

다른 본(本)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디 갔다 오느냐?”

“어제는 우연히 외출하게 되어 미처 모시지 못하였습니다.”

마조 스님이 “악!” 하고 고향을 치자 스님께서서는 바로 나가버렸다.

[보설]

이 대목은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을 인가하는 대목이다.

대중이 모이자마자 백장 스님께서 나와 법석(法席)을 맡아버렸더니 마조 스님은 바로 법좌에서 내려왔다.

왜 그런 행동을 하였을까? 어제 마조 스님의 기연으로 마음을 밝혔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마조 스님은 법좌에 앉아 있고 대중은 법석에 앉았을 것이다. 이것을 들어 주와 객으로 보

아야 한다. 이제 스님이 마음을 밝히고 보니, 모든 것이 차별과
 분별심이 없는 진실 여상한 진여에는 그 어떤 차별이나 분별이
 없음을 밝히고 있는 대목이다. 법좌와 법석은 주와 객으로 차별
 적 관계에 있다. 설법자와 법을 청하는 관계 속에서 차별 없는
 ‘일미 평등(一味平等)’한 법해를 증득해야 하는데, 이 법좌와 법석
 이라는 두 차별적 관계를 자리를 건음으로써 대중에게 이법(二
 法)이 없음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그러자 마조 스님 역
 시 스님의 행동을 인증하고 있다. ‘법좌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법
 좌에서 문답하는 것이 방편설이므로 방편설이 아닌 궁극적 자리
 인 본래면목인 방장실로 돌아가신 것이다.

“내가 조금 전에 말도 꺼내지 않았었는데, 무엇 때문에 별안간
 자리를 말아버렸느냐?”

여기서 마조 스님은 ‘모든 것이 방편설로 내 본분종사의 짓을
 행하는데, 왜 내가 그 법연을 막았느냐?’라고 묻고 있다. 이에 지
 금 이 말을 경계삼아 이유를 이야기한다면, 경계 따라 일어나는
 마음의 경계를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번뇌와 망상에 불과한 아
 무런 가치가 없다. 즉, 지나간 일을 생각해 내는 것은 번뇌요, 생
 각이라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를 이야기함은 망상이 되는 것이
 다. 선기(禪機)의 작용은 ‘지금 여기’를 떠나 한 찰나도 지어서 말
 을 하면 이법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대로 말하면 될 뿐….

그래서 백장 스님은

“어제 스님께 코를 비틀려 아파서였습니다.”라고 답하여, 지금
 바로 떠오르는 한 마음을 직설적으로 나타내어 전하고 있다. 즉

마조 스님의 물음이라는 경계에 따라가지 않았다. 시비를 떠났으며 한 생각의 조작 없이 그대로 말을 하고 있을 뿐이다. 물음에 답이라도 좋고 아니라도 관계없이 지금 일어나는 한 마음을 말로써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마조 스님은 다시 그 경계를 살피서 묻고 있다.

“그대는 어제 어느 곳에 마음을 두었느냐?”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두느냐 두지 않느냐. ‘어제 어느 곳’은 전부 다 지나간 없어진 공간이다. 그 식심(識心) 속에 간직된 번뇌라는 말이다. 그러면서 끈끈하게 아교풀 같이 물고 넘어진다. 그래서 백장 스님은 말후구를 날렸다.

“코가 오늘은 더 이상 아프질 않습니다.”

물음과 아무런 관계없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어제 아픈 그 느낌의 번뇌는 사라지고 모든 것은 본래면목에서 아무런 느낌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적적성성하게 밝게 빛을 발하고 있다는 표현으로 “아프질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천하의 선승인 마조라도 더 이상 말을 이을 것이 있겠는가? 마음을 깨달아 스스로 본래면목에 주하면서 본래자리에 있는 백장 스님을 보면서 확연하게 마음을 밝힌 백장 스님을 증명한다는 뜻으로,

“그대는 어제 일을 깊이 밝혔구나.” 하면서 담담히 제자를 인가하고 증명해 주고 계신 것이다. 이에 대답 대신 절을 하고 자기의 본래자리로 물러 나왔다는 장면을 인용하여 기록한 것이 이 행록의 내용인 것이다.

가을하늘 푸른빛이 흰 구름을 물들인다.(끝)

- 이 글은 『백장록 강설』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이 글은 미내사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나 재배포를 할 수 없습니다.

역해 | 원오(圓悟) 스님 | 1950년 경남 창녕 출생. 장년의 늦은 나이에 불교를 접한 그는 사업가로서 한 사찰의 신도 회장을 맡아 신행을 하다가 깨달음에 대한 목마름을 채우지 못해 결국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다. 10여 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깨달음을 얻은 그는 10여 년 전 용인 화곡산 아래에 화엄정사를 지어 보인(保任: 깨달음을 보호하고 지켜가는 수행) 공부를 하는 한편,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출·재가 선택들을 지도하고 있다. 스님의 가르침을 접한 재가자들이 원오 스님 카페([http:// cate.daum.net/wono1](http://cate.daum.net/wono1))를 만들어 지금은 대표적인 참선 카페로 자리 잡았다.

추천도서 마음에 닿은 책 Good Book

백장록 강설

저자(역해) 원오 | 출판사 비움과소통 | 정가 20,000원



백장선사의 지혜로운 선문답을 만나!

조사선의 백미사가이론 시리즈 『백장록 강설』, 백장선사의 대중 법문과 선문답을 최 로 해설한 책이다. 그동안 혜능선사, 마조선사, 임제선사, 조주선사 등의 선어록은 국내외에서 해설본이 출간된 적이 있지만 백장선사의 어록이 강설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해자인 원오 스님의 수행 체험과 깨침을 바탕으로 번득이는 지혜와 유머가 가득한 선문답을 만나볼 수 있으며, 원문의 깊은 뜻과 맛을 살려 흥미롭게 도움말(보설)을 주고 있다. 아울러 간화선의 뿌리인 조사선의 마음공부를 드러낸 점이 특징이다. 백장어록과 백장광록 2부로 구성했으며, 선이란 무엇인지, 깨달음의 성품이란 어떤 것인지 등 삶의 지혜를 전하고 있다.